

▣ 도서명 : 건축물의 기억 ( 최경석, 오소리, 홍지혜 / 사계절 )

바나나가 더 읽찍 오려면 ( 정진호 / 사계절 )

▣ 발제자 : 최지선

▣ 날 짜 : 2026 년 06 월 17 일

---

---

## <건축물의 기억>

세명의 작가가 각자 느끼고 경험한 것을 세가지 목소리로 전개 한다.

작가들은 현장을 답사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록을 살피며 가해자들의 자취를 쫓아 세가지의 시선을 촘촘히 담아 냈다. 최경석 작가는 시작에서 건축물을 다각도로 묘사해서 실재하던 공간의 분위기를 생생히 담았다고 한다.

오소리 작가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그림과 글을 토막 토막 보여주고 가해자들의 난폭한 정신체계와 고문의 공포감을 표현했다.

홍지혜 작가는 그곳을 거쳐 간 사람들의 떠올리기 힘든 고통을 차갑고 담담한 푸른색으로 그려냈다고 한다. 하지만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단단 하게 나아가서 내면적 분투를 그들의 목소리에 담고 희망을 품은 이미지로 이야기를 맺었다. **(건축물의 기억 깊이 읽기에서 본내용)**

책 표지를 처음 보았을 때는 어떤 건물의 그냥 먹인가 보다 하고 생각 했다.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나의 생각도 달라졌다.

이런곳이 있다고만 역사책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듣기만 했었지 실제 있었다고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었다.

나에게(발제자) 남영역은 늘 별생각 없이 지나다니던 곳이다.

친정갈 때 지나가던.. 지하철역은 다른느낌을 받아본적도 그런곳이 있다는 생각도 해본적이 없던..

이젠 지나갈 때마다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세상의 건축물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 책의 내용처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또 있을까?

## <바나나가 더 읽찍 오려면>

내가 새벽에 과일이나 물건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새벽에 일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기를 만들며 또 누군가는 운전을하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를 운행해야하며 누군가는 새벽에 장사를 해야하고 전구를 만들며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갈 물고기를 잡아야한다.

그런 이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우리는 새벽에 주문을 할 수가 있다.

택배는 참으로 편리하다. 배달을 하는 일을 힘들다. 누군가 그 일을 해보지 않으면 아니 하지않는다면 세상은 멈출 것이다.

새벽배송 되는 책을 기다리며 또 간식거리들을 기다리며 택배를 기다려 본다.

새벽에 운전하고 일하는 건 힘들거 같다.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볼 일은 없겠지만, 택배일을 해주시는 분께 갑질을 할게 아니라 고마워 해야하고 또 감사해야할 것 같다.